

ACC '풍성한 문화 성찬으로의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2월 전시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한눈에 '푸드 투데이'展
키르기스스탄 문화망라 '마나스'展
김세종 컬렉터의 '판타지아 조선'展
'빛의 화가' 우제길 화백 지역작가展

추운 날씨 탓에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 요즘,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겨울 방학기간인 1-2월,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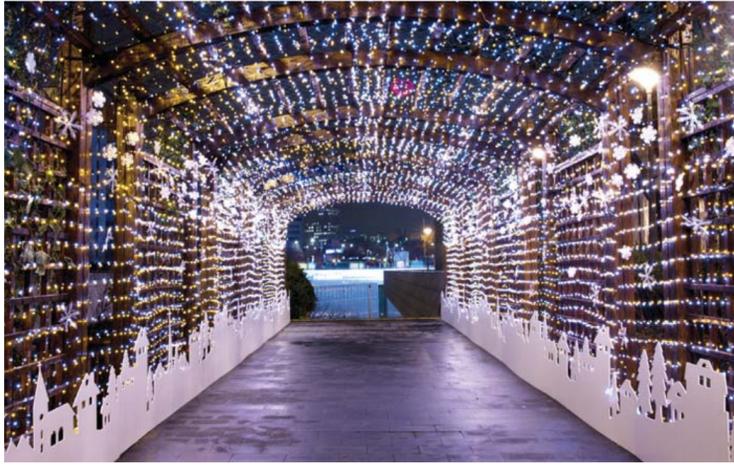
먼저 '아시아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바로 '푸드 투데이(FOOD TODAY)-인도네시아 음식, 사회, 미디어아트'전이다.

다음달 24일까지 문화창조원 대나무정원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인도네시아와 수교 45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인도네시아의 비영리예술공간인 루앙루파의 '오케이, 비디오(OK.VIDEO)-인도네시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서 소개됐던 영상작품들과 아카이브 자료로 인도네시아의 현재를 소개한다.

라이브러리파크 기획관3에서 열리고 있는 '마나스: 유네스코 등재 인류 최고의 서사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마나스'의 일대기를 35점의 판화와 샌드 아트(sand art)를 통해 보여주고, 키르기스인들이 직접 묘사한 그들의 일상을 담은 22점의 회화 이미지로 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전시를 마련한다. 사진은 ACC 6층 출입구 장식. /ACC 제공

르기스의 문화를 전달한다. 영상 자료들을 통해 '마나스'라는 인류 최장 서사시의 내용과 그 배경인 키르기스스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나스치가 파괴된다는 영상을 어두운 공간에 독립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공간도 연출했다.

그런가 하면,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Fantasia Joseon)'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 예술의전당 전시 이후 순회전으로 마련된 이 전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열린다. 지난 20여년간 김세종 컬렉터가 '문자도', '책거리', '화조', '산수', '삼국지', '구운몽', '까치호랑이' 등 민화만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작품 6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지역 원로 작가의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빛의 화가'로 알려진 광주의 작가 우제길 화백의 전시다. '우제길의 빛(Woojaegil-LIGHT)'을 주제로 하는 이 전시는 올해 ACC가 선정한 지역작가전으로,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린다.

전시에선 19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빛'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확고한 예술세계를 구축해온 우제길 화백의 신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의 추상화는 색과 빛 그리고 면이 다양한 변주를 이루면서 나타난 시각적 결과물로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기법은 계속 변화해 왔다. 모노톤의 화면에서 색조에 변화가 도입됐고, 이후 다양한 컬러들이 울동감을 이루는 작품들로 변화해 왔다.

우 화백의 신작 31점을 비롯해, 1970년대 작품부터 2004년 6m 대형 캔버스의 작품까지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문의 1899-5566) /정겨울 기자



판타지아조선-까치호랑이



'마나스'전에서 선보이는 작품 중 '우르트 안의 여인들'. /키르기스공화국 문화정보관광부 제공



우제길작 'light2010-6g'



'푸드 투데이-인도네시아 음식, 사회, 미디어아트'전 작품.



'사유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전시 전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미디어아트로 부활한 소쇄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별서정원 콘텐츠 개발·전시
담당 담빛예술창고 '사유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展

우리나라 대표 별서정원이자 누정문화의 산실인 담양 소쇄원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개발돼 전시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8일부터 3월3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남도문예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전:사유(思惟)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전시를 마련한다.

전시는 '소쇄의 시(時)'와 '뜻으로 이룬 공간, 소쇄원' 총 2개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소쇄의 시(時)'는 소쇄원 사계 풍광과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소쇄원48영'(瀟瀟園四八詠)을 사실적 3D그래픽으로 구현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

전시 콘텐츠 앞에 서면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계절별로 변화하는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뜻으로 이룬 공간, 소쇄원'은 소쇄원의 창건자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을 걸어보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이뤄졌다. HMD 헤드셋을 쓰고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 곳곳을 거닐어보면 자연과 함께 학문을 고민했던 선비들의 자취와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한 칸에는 송창근 사진작가(한국예총 담양지회장)의 '소쇄원 48영' 사진전도 함께 진행된다.

전시 관계자는 "조선 선비문화의 산실인 별서정원 소쇄원이 품은 가치와 의미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조명했다"며 "전시관을 찾아 새로운 방식으로 소쇄원을 체험하고, 과거 선비들의 풍류와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 개막식은 29일 오후 3시 열린다. (문의 061-339-6973)

/정겨울 기자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 2개 사업 내달 14-15일 접수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 '주말 예술배움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배움터 광주 Re' 2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장르·공간·예술가를 활용한 교육을 펼쳐 나갈 운영 단체를 모집하며, 올해 지원예산은 4억 원으로 공모는 일반유형과 인큐베이팅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유형은 2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하며, 단체별 연간 25차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천5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신규 단체의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유형은 교육워크숍과 컨설팅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이다. 신규 운영단체 혹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경험이 3회 미만인 단체

(기관)으로 5개 내외를 선정하며, 단체별 500만원-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배움터 광주 Re'는 시민 참여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모집한다. 2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하며, 단체별 1천만원-2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혹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www.gjart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다음달 14-15일(오전 9시-오후 6시) 이메일(gjarte@hanmail.net)로 서류제출 후 빋고 을시민문화관 4층 소담방으로 방문 접수해야 최종접수 완료된다.

공모사업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빋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문의 062-670-5763, 062-670-5764) /정겨울 기자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삼계탕,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www.yh-bus.com
전화: 062-944-5775 팩스: 062-944-5995